

암특집 자궁경부암의 치료와 예방



박 찬 규

연세의대 교수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으로 완치율 비교적 높은 암

우리나라의 여성암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가 질경으로 외부에서 관찰하기 쉽고 세포진 및 자궁경부화대 촬영법과 필요에 따라 질 확대경 조준하 생검을 통하여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단계에서 진단하여 암전 단계에서 예방 및 침윤성 암의 조기진단으로 완치율이 비교적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된 암에서는 완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역학적인 면에서 본 고위험예후군, 기존의 치료법인 수술이나 방사선 단독요법 후 추적 관찰 중 잔류 및 재발암을 초래하는 불량한 예후군을 선별하여 최근에 발달된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의 일환인 생물학적 활성 조절제(BRM; Bioloic response modifier)등의 다양한 치료법으로 근치율을 향상시키고 한층 더 나아가서 암 치료 후 삶의 질의 향상까지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암 예방 및 조기진단의 견지에서 역학적으로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폐루의 트리질로 지역이 여성인구 10만명당 54.6명으로 가장 높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마드리스가 47.2명으로

가장 높으며, 한국 서울지역은 30명으로 중남미 지역 보다는 낮지만 태국 29.2명, 필리핀, 마닐라 25.8명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재

가능한 이 단계에서 조기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빠른 성개방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이 박혀 있

진단이 가능한데, 세포진의 문제점은 암세포가 있는데도 음성(위음성률)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40%까지 되므로, 세포진검사시 경부미란이 심하거나 성교 및 접촉출혈등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면, 부인암전문의가 있고, 방사선 치료등 암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기초검사 및 병기결정

우리나라 여성암 중 가장 높은 빈도 차지

자궁경부 이행대가 미숙하고 큰 사춘기의 성개방·흡연등이 원인

문란한 성생활 절제, 사춘기 이전의 성생활 금지 및 금연해야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자궁경부암 발생부위인 자궁경부 이행대가 미숙하고 큰 사춘기에 성개방 및 흡연 등으로, 즉 성교를 통한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발생인자에 속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등의 감염, 특히 제16형 및 제18형 감염, 흡연으로 인한 분자생물학적 병화등은 자궁경부암 발생의 전 단계에 속하는 자궁경부상피 내종양을 초래하므로, 100% 완치

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성개방된 사춘기의 여성의 골반내진 및 세포진 검사를 기피함으로써 시간이 경과되어 암전 단계인 자궁경부상피내종양에서 진행된 암으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교시작과 더불어 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세포진 검사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법, 필요에 따라 질확대경 조준하 생검등을 실시함으로써 조기

이 있는 경우는 질확대경 검사에 따른 조준하 생검이 필요하다.

조직 생검에서 침윤성 암으로 확진되었을 시 그 생검 주위 조직에는 암 전 단계인 이형성 및 만성염증등 여러 병소가 함께 존재하므로, 자궁경부의 다른 부위를 조직검사할 경우, 더 경한 상태, 즉 이형성이나 정상조직까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직학적으로 한 번

에 따른 수술 및 방사선 단독 치료 후 발생하는 암의 잔류, 재발을 초래하는 중요한 인자를 선별하여 그러한 경우에 수술 및 방사선요법의 일차치료와 더불어 항암화학요법, 면역 및 생물학적 활성 조절제등의 병용을 통한 다양한 치료법을 통하여 완치율을 높이는 것이다.

(11면에서 계속)

성균관 대학교 의대 외
 산·한·한동·여구·개발!
 (PF127 제법특허 출원)

도전! 간질환 치료율 100% - 메데스

체내이용률을 높인 간질환 전문치료제

만성간염·알콜성간염·지방간·아제, 체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진
새로운 간질환 전문치료제 '메데스'로 정복하십시오!

간질환 전문치료제 - '메데스'의 특장점

- PF127이라는 특수기재를(특허출원중) 사용하여 체내이용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 만성간염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메데스' 복용 3개월후 85.6%의 S-GPT수치 개선)
- 만성간염이 간경변·간암으로 진행됨을 지연·예방시켜 줍니다.
(1992년 제41차 대한 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 7.5mg DDB 캡슐제로 간세포 재생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최초로 국내제제 기술로 생산)
- 면역기능 증강 및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 간에 부작용을 일으키는(항암제, 항결핵제 등의) 약물과 병용시 간장애를 예방합니다.

용법·용량: 성인1회 1캡슐 1~2개월 사용해도 개선이 없을때는 1회 2캡슐.
1일3회로 증량할 수 있으며 투여기간은 6~12개월간으로 합니다.
표준소매가격: 63,000원 / 90캡슐

체내이용률을 높인 간질환 전문치료제
메데스® 캡슐

제조판매

태평양제약

연구개발

태평양 기술연구원
(의약연구소)

년, 복제야!

복제 원숭이

'96년 8월 미국 오리건 지역 영장류 연구소에서 수정란 세포가 아닌 체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복제기술로 태어난 원숭이. 복제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논쟁을 낳고 있다.
(97.3.4. 비비트 AP연합)

케토톱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관절염, 꽉꽉 캐내는 건 하나 -
케토톱의 기술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미국·일본·프랑스 4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케토톱 -
그 특허의 비결은 PML인핸서 (태평양이 독자개발한 경피투여형
약물첨포제)가 관절염·류마티즘에 좋은 케토프로펜을 뼈마다까지
깊숙이 도달시켜 통증을 꽉꽉 캐내주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물론 허리, 어깨의 깊숙한 통증까지 꽉꽉 캐내는 건 하나 -
케토톱의 기술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암특집 자궁경부암의 치료와 예방

전문의에 의한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가 중요

〈9면에서 계속〉

일차치료인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치료실패, 즉 잔류 및 재발암을 초래하는 고위험인자는 수술군에서는 그 적출률의 육안 및 병리 조직학적 검사상 자궁경부암 종괴의 크기가 4cm 이상, 임파절전이시, 자궁경부 실질의 임프혈관 침윤 및 암침윤 깊이가 10mm 이상, 세포형태가 소세포암 및 편평상피선암, 자궁방 결합조직의 암침윤이 있을 시이다. 방사선치료군에서는, 암병기 3, 4기로 진행된 경우, 병소의 크기가 4cm 이상, 전산화 단층촬영 및 핵 자기공명 촬영과 임파선 촬영 시 임파절 전이가 나타날 때, 세포형태가 소세포암 및 편평 상피선암등이다.

이상의 경우는 일차치료로서 수술 또는 방사선단독치료만으로는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게 근치율이 떨어지므로, 치료실패를 방지하고 근치율

사선 단독치료 후 치료실패가 높은 군에서는 방사선 치료전 및 동시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함으로써 항암제가 방사선 치료 효과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근치율을 높일 수 있다.

전문의에 의한 상기한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셋째, 최근 암치료의 목적은 생존율의 증가는 물론 치

수 있다. 셋째 과거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는 암파급으로 인한 요도폐쇄시 요관삽입 또는 경피신루설치술 등을 시술함으로 신장기능을 향상시켜서 요독증을 치료

나, 부득이 사춘기에서 성생활을 시작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집착하지 말고, 개방된 성숙한 여성답게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통한 세포진 검사 및 자궁경부 질확대 촬영

암 치료, 생존율 증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초

암 치료 후 삶의 질 향상 위해 다양한 치료법 사용

고위험군에서는 수술 전후에 항암제 사용으로 근치율 높여

최근 진행된 3~4기 자궁경부암에서는 알파-인터페론과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B-시스-레티노이드와 방사선을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방사선

치료 후에 인간답게 여생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의 향상에 기초를 둔다. 첫째, 암 치료 후 호르몬 대치료법으로서 여성호르몬, 필요에 따라 li-

함은 물론, 한층 더 나아가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삶의 질의 향상 및 생명연장을 이룰 수 있다.

술, 필요에 따라 질확대경 검사에 따른 조직샘검들을 통하여 예방 및 조기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치료적 차원에서 종래의 일차치료인 수술 및 방사선 단독치료 후 치료 실패율이 높은 고위험군에서는 치료전, 후 및 동시에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생물학적 활성 조절제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시행함으로써 근치율을 높일 수 있다.

암 치료 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호르몬의 대체요법, 요독증 방지 및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 및 완치를 이루할 수 있는 것이다.

〈끝〉

암병기, 연령, 예후인자 등에 준한 다양한 치료법 선택 필요 수술적 치료만이 암 치료에 첨경이라는 생각은 금물

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술 후 적출률의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상기한 고위험군에서는 수술 전후에 보조요법으로서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를 수술 가능케 할은 물론 치료실패를 방지하여 근치율을 높인다. 방

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암 치료효과를 상승시켜서 근치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암병기, 연령, 예후인자 등에 준한 다양한 치료법의 선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만이 암치료에 첨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암

bido를 향상시키는 안드로젠 등을 사용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초래하고, 둘째 잔류 및 재발암에서 수술, 방사선 요법,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생물학적 활성 조절제 등을 적절히 병용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근치율도 높일

결론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의 차원에서 문란한 성생활의 절제와, 가능하면 사춘기 이전의 성생활의 금지 및 금연을 통하여 발암인자로 간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제2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의 성접촉을 통한 감염방지가 이상적이

면역기능과 효소의 营養寶庫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맥주효모에 비타민E, 알로에와 우골분을 강화시킨 미생물식품

- 리포마 - 포르테는 면역기능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 - 특수다당체, 핵산, 비타민E 등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 - 포르테는 인체의 모든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효소의 재료영양소 - 비타민B군, 미네랄, 미량원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 - 포르테는 건강의 유지 및 회복에 있어 지름대 역할을 하는 면역기능과 효소의 완벽한 영양집결체입니다.

리포마® 포르테

H [주]한국바이오에너지
Korea Bio-Energy Co., Ltd.

본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4-16 영성B/D 2·4층
공장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90-13 (시화공단5바812)
전화 : (02) 547-7056
수신자요금부담전화 : 080-250-2500